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APU 재학생이  
고교생에게 보내는

배움의 메시지





**Shape your world**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한나라

13기 (APS)

경해여자고등학교 졸업



일본어 기준으로 입학한 제가 APU를 선택한 이유는, APU라면 일본 대학에서 일본어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만날 수 있으리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PU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다와 같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수십 가지이며 그 안에도 여러 갈래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진정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한 지 어느덧 1년을 넘기면서 저는 처음 유학을 올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고, 앞으로 3년 후의 모습은 더욱 달라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1학년이라 학교생활에서는 주로 동아리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현재 CO-KOREA라는 한국학생 클럽과 사물놀이 팀인 신명의 일원입니다. 일견 둘 다 한국 관련 커뮤니티라 비슷한 성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곳에서 얻은 경험은 각각 다르고 저로 하여금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신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팎으로 명성이 높은 동아리로서 본교 행사뿐만 아니라 리츠메이칸 교토 캠퍼스를 포함한 일본 타 지역에서의 공연 및 한국의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벳부시에서는 매년 정기공연을 여는 등 10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의 사물놀이만 배우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공인단체 동아리인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등 전통 문화 예술 동아리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 그들과의 교류 또한 멤버의 식견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APU가 어떠한 학교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 오기 전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APU는 많은 문화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모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4년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강진  
13기 (APS)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입학한 13기 이강진입니다. 제가 APU로의 진학을 결정했던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라는 곳에 진학할 수도 있었고 깊은 관심을 둔 분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PU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열려 있는 기회와 기존의 한국 대학교들과는 전혀 다른 커리큘럼은 저의 마음을 APU로 돌려놓기에 충분했고 지금도 그때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제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인종의 외국인 친구들과 재일교포, 일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었지만 친구들과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흔한 대화가 아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토픽에 대해 토론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야의 한계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 발전하는 일본어와 영어 실력 또한 APU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간 APU에서 겪은 일 중 뜻 깊었던 경험은 바로 코리안 워크의 리더로서의 활동입니다.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손꼽히는 행사중 하나인 코리안 워크에 리더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선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수 백 명의 다국적 학생들을 인솔하며,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면서 제 자신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리안 워크의 다양한 이벤트 중에서도 탈북 청소년 초청 간담회, 재일교포 교육 강연회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을 때에는 APU의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슴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등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타 대학과 APU를 비교해서 써 놓은 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입학 전 그런 글들을 읽고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일 년이 지난 지금은 걱정과 불안이 아닌 열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PU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APU만의 장점과 경쟁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APU에 오신다면 수 많은 기회와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혜민  
12기 (APS)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알찬 4년, 뜨거운 열정과 함께!

안녕하세요! 2011학년도 4월에 입학한 12기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APU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맞춤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학 당초에는 외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했으나 학교생활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저 자신의 내면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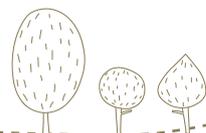
APU에서는 학업적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TA나 리더로 활동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 있는 '나'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제나 닦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1학년 때는 외국인 친구 만들기에 급급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만 2학년이 되어 FLAG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스태프로 활동하던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국제학생 반에 일본학생 반, 약 30명의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FLAG는 이수등록 및 학교생활 가이드스 그리고 다양한 게임 등이 섞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신입생들의 적응을 지원합니다. 우리들 30명의 손과 말에 신입생들의 첫걸음이 순조롭게 시작되기에 더욱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FIRST TA의 활동에서는 TA 한 명 당 1학년 일본인 학생 6~7명을 인솔해 3박4일간 한국에서 연구조사를 함께 합니다. 여기서 TA의 일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혼란스러워해도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입마저 절제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APU는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을 동시에 키워주는 학교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또한 APU는 일본의 다른 어느 대학보다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학기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미주, 호주, 아시아, 유럽지역, 아프리카 등으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교환유학을 떠납니다. 제가 교환으로 다녀온 학교는 뉴 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뉴 멕시코 주립대입니다. 이곳으로만 APU학생이 5명이 갔으니 그 수가 짐작되시나요? 영어향상 능력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APU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제 부족함을 느끼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APU는 학생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에 달렸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며 매일 자연스럽게 생활하면 어느새 생각의 폭이 넓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의 두 배로 더 열심히 하는 동안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가까워지는 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정**  
12기 (APS)

대진여자고등학교 졸업



### APU를 선택한 이유

저는 APU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에 흥미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랬듯이 저 역시 유학을 한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던 지라 꼭 한번쯤은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APU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APU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APU에서 뜻 깊었던 학생생활

저는 현재 3학년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워크샵, 2 수업의 TA(조교), FIRST 프로그램의 TA, 도서관 스태프, 기숙사의 Resident Assistant, 즉 R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PU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색다르고 뜻 깊습니다. 세계 그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인도네시아 친구와 세수를 같이하면서 아침을 먹고, 수업은 스리랑카, 미국, 중국 등 여러나라로부터 온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저녁에는 일본학생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등 그야말로 지구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곳곳에서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리더십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APU가 아니고선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 APU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APU의 학생으로써 APU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APU는 정말 국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자체부터 굉장히 글로벌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APU입니다.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정말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APU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한다고 망설이는 학생께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APU에 오기 전에는 히라가나도 제대로 못 쓰는 학생이었습니다만, APU의 체계적인 일본어 수업을 통해서 일본어를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높은 환율을 걱정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마련되어있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 RA, TA 등 각종 근로장학 활동, 아르바이트 자리가 다양하므로 적극적으로 생활한 한다면 큰 부담을 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APU에 진학하신 후에는 꼭 적극적인 학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APU는 수업뿐 아니라 정말 어느 대학에도 없는, APU만이 제공하는 아주 귀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서서 찾아보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활동을 통한 배움은 커녕,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APU의 진학을 결정한 학생이라면 먼저 적극성을 길러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세라  
11기 (APS)

영파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득 국제학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APU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APU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영어 과목을 좋아했던 터라 대학교 때에는 좀 더 심화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좀 더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APU가 일본 대학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때 2년간 공부한 일본어 실력을 발전시킬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다가 무엇보다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현재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로는 2011년 1년간 오이타현 사이키시 국제 교류 지원 봉사입니다. 사이키 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저 또한 학생들에게 일본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류활동을 통해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을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 전에는 몰랐던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국제인으로서의 의식을 갖추는데 더 없이 유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APU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PU에서 제가 겪을 많은 경험들이 저 자신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림**  
11기 (APM)

뉴질랜드고등학교 졸업  
NTT Docomo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4월에 입학하고 2013년 3월 졸업을 앞둔, 11기 APM 정하림입니다. 조기졸업으로 인해 짧고 굵었던 3년 간의 저의 대학생활을 부끄럽지만 APU에 관심 있는 후배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소개하고자 글을 씁니다. 'ありがとう(=고맙습니다)' 라는 한 단어만 알고 APU에 입학했던 저는 올해 4월부터 '일본 내 사회초년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이자 세계 기업 46순위'인 일본기업 NTT Docomo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 있을 당시, 동경에서 열리는 취업 포럼에 참여해서 인생 처음으로 기업설명회를 듣고 회사 인사부 사람들과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제가 APU의 학생인 점에 대해 무척이나 흥미로워 했고 영어와 일본어 이외에도 모국어(저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저희 APU학생들을 매우 높게 평가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력서를 넣었던 7곳 모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Docomo와는 1,2,3차 면접의 합격 통지를 모두 인사부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본사로의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APU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던 때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PU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부터입니다. 그 후 당시에 함께 유학 중이던 일본인 친구들 및 인터넷을 통해 APU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란 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환경(80여개 국 출신 학생 + 제 2언어교육(영어와 일본어)+96%이상의 높은 취업률 등)을 한번에 얻어갈 수 있는 APU는 저에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학금이 많아 이 또한 저의 결정에 큰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기대와 함께 저의 제2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APU에서는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롭고 다양한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워크샵과 한국어TA(조교), 해외 봉사동아리, 교내 카페테리아에서의 아르바이트, 학교 홍보, 국제 주간에서의 패션쇼(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중국 등), 국내 교환학생 등 많은 활동과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국제인임을 체감하고 뜻 깊은 경험으로 스스로 발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캄보디아에서의 집 짓기 봉사동아리(Habitat) 활동이네요. 2학년이 된 뒤 1년 동안 교내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와 학교 홍보 등을 통하여 28만 엔을 모은 저는 일본, 노르웨이, 한국, 태국의 17명의 친구들과 함께 3주간 집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에 숙소를 떠나 제대로 된 장비며 시설도 없이 (물조차 우물에서 길어와야 할 정도), 잠시 쉴 그늘진 곳도 없는 곳에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무척 강해졌고 감사하는 마음과 팀워크 등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얻은 모든 결과물은 APU에서 쌓은 저희 값진 경험들과 노력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APU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경험들이 가능한 곳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고 가능성으로 넘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또한 더욱 더 글로벌한 인재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건무

11기 (APM)

West Vancouver고등학교 졸업

### 내가 APU를 선택한 이유

제가 APU를 선택한 이유는 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졸업한 캐나다 고등학교의 마케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물건을 팔고 싶으면 다른 것들과 차별화시켜야만 한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길 ‘나를 시장에 내놓은 상품으로 봤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며칠을 두고 고민해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 점에 무척 분개되었습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다른 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캐나다 대학도, 한국의 대학도 아닌 APU로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APU에서 전세계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영어와 일어로 공부한다면 앞으로 더욱 세계화되는 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APU는 제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익힌 국제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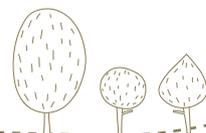


### APU에서의 생활

저는 1년 반 동안 교실 안 공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일들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저의 비전은 미래 사회에서 활약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점점 진행되는 세계화에 적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문화 환경을 갖춘 이 대학에서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고 새로움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토와 나가사키에서 평화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문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약 10개국에서 참가자가 있었고 계획을 세워 실현하는 동안 다문화의 바른 이해방법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1년간 저는 약 1300여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레지던스 어시스턴트(이하 RA)로 활약했습니다. 기숙사에는 80여개 국 이상으로부터 온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RA로서 활약할 때는 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캠프와 FIRST프로그램 등 글로벌 인재에 필요한 덕목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 선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

‘의욕’과 ‘적극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타의 대학 역시 그러하겠지만 APU는 특히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든 해낼 수 있었지만 대학에서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활동도, 경험도 불가능하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욕과 적극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학생에게는 전력으로 지원해주는 대학이 APU입니다. APU는 기회로 넘치는 대학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불가능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APU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들 간에 국경을 넘은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른바 ‘세계화’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APU에서 거기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APU에서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한걸음 내딛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홍혜진  
11기 (APS)

천안 복일여자고등학교 졸업  
파나소닉 근무



저는 APU에서 공부해 일본 최고 회사중의 하나인 파나소닉에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취직활동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2학기가 끝난 후 2월부터 오사카에서 홀로 취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좌절도 실패도 겪었습니다만 끊임 없이 도전해서 제가 가장 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업성공 노하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낙관적인 마인드를 갖자.

취업활동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고. 흔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낙관적인 마인드 컨트롤은 본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외국인을 따로 채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회사의 시험전형이 일본인과 동일합니다. '난 외국인이니까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면 100이었던 자신이 100, 1000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외국인다운 신선함, 참신함을 보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APU를 활용하자.

APU는 국제대학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다문화 환경을 체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장합니다. 단지 언어만이 아닌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취업활동을 할 때에도 기업에 크게 어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정**  
10기 (APS)

김천여자고등학교 졸업  
파나소닉 근무



**우물 안 개구리가 넓은 세계를 보다!**

한국의 소도시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외국 유학이란 어렸을 때부터 그저 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APU를 접하게 되고 좋아하던 영어 실력을 살려 영어기준으로 APU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도 한번 가지 못해봤던 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 벳부라는 작은 도시...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일본어도 모자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만 무하고 학교를 벗어나면 어설플 일본어로 소통해야 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2013년 4월에는 일본 기업 파나소닉에 정사원으로 입사하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바로 APU라는 넓은 세계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국 커뮤니티로부터 come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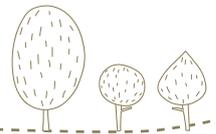
APU는 외국인 친구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한국인끼리 친구가 되기 마련이었고요. 하지만 APU만의 환경을 살려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나의 언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일본인 룸메이트와 더할 나위 없이 친해져 서로의 일본어, 영어공부에도 도움을 주고받았고 함께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대만, 중국, 태국, 미국, 영국 등등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소중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APU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통해 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귀중한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내가 필요로 하는 회사가 분명 있습니다.**

APU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현재의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 채용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APU학생들이 갖춘 기본 3개 국어 이상의 언어능력, 보통 일본인들과는 사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여러 문화와 접하면서 기른 유연한 문제해결능력들은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가기 원하는, 글로벌화를 외치는 일본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내에서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므로 유창한 일본어 실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취업활동 중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에는 낙심과 함께 그때까지 열심히 해 왔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각 기업이 원하는 것은 우수하기만 한 인재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물상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 부족하고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없어서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내정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像)'과 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크게 마음 상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참 많고 배워야 할 것, 경험하고 싶은 것 또한 많은 4학년 학생이지만 저의 APU경험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와 APU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APU 졸업생으로서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기위해서,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고 싶은 저의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APU졸업생으로서 세계 어딘가에서 꼭 만나길 바랍니다!





한경보  
10기 (APM)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가을학기 입학)



세계도 APU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APU에 와서 겪은 1학년 1학기 동안의 시간은 정말 제가 이곳을 선택한 결심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대학 생활이자 유학 생활, 생소하기 그지없는 일본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주는 압박감과 걱정 또한 적지 않았습지만 그런 걱정거리들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수업과는 달리 늘 교수님 및 일본, 중국, 태국 등 여러 나라의 친구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고 인터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수업은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APU의 영어-일어 2언어 교육 시스템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일본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언어 수업들을 들으면서 실력을 쌓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AP하우스 안에서는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실시간으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를 해서 복학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만 학업과 활동 모든 면에서 열심히 뒤통을 결과, 지난 학기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지만 누구나 실행하지는 못하는 저의 성적 관리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시간 배분을 철저히 했습니다. APU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과목을 몇 교시에 들을지, 특정 근로장학 모집 시험을 볼지 말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언제 어디서 할지, 심지어 무슨 요일에는 몇 교시에 점심을 먹을지 까지 전부 꼼꼼하게 스케줄을 짜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생활하니 학교 공부에 집중하는 동시에 근로장학 업무, 아르바이트, 축구 등 제가 하고 싶은 다른 활동들을 여러 가지 병행할 수 있더군요.

다음으로 최대한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의 내용을 복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하

루 2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한해서는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APM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고차원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 수업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수업마다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선택하면서 선배들에게 정보를 구하면 각 수업의 특징들과 그 수업을 이끄는 교수님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업 스타일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회계 관련 수업의 경우, 교재보다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모든 수업을 녹음하고 시험 직전에 다시 들으면서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쑥스러운 제 비법 아닌 비법을 알려드리면서 제 APU에서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APU에 와서 성장한 제 모습을 보면 저조차도 깜짝 놀란다는 점입니다. 자신감과 언어 능력, 공부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수 많은 다국적 친구들과의 사귄까지. 지금 이렇게 변화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날 APU로 진학을 하고자 한 저의 결정과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선  
10기 (APS)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대한항공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APU 10기 김은선입니다. 현재 저는 APU를 졸업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PU는 세계 약 80 개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이문화 간의 이해와 교류, 국제 인맥 네트워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APU가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한 학생은 글로벌 문화에 열린 마인드를 지니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APU에서 입학 전 장학금으로 4년간 수업료의 30%를 감면 받아 입학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비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가령 입학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학기 분 성적이 나온 이후에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는 RA(기숙사 어시스턴트) 활동을 하면서 매달 2만엔, TA(수업 조교) 활동으로 매달 1만엔, SA(시스템 어시스턴트) 활동으로 2만엔, 거기다 매달 4만 8천엔짜리 학습 장려비와 2만엔짜리 오이타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어가 익숙해진 다음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좋은 경험이 되지만 저는 학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덕분에 학교 교내 활동과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서 우수상을 받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APU에서는 다양한 장학금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학내 인트라넷에 수시로 공지되는 관련 공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살펴 지원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장학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학교와는 달리 APU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됩니다. APU의 장학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두더라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APU의 방식입니다. 자기 몫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학업이나 활동에서 성실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장학금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숨어있는 내 몫을 찾아내 학업과 경험치 증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윤희정**  
10기 (APM)

여의도여고 졸업  
후지 제록스 근무



### APU를 선택하기까지

저는 고2 겨울방학 때 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보통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던 2월쯤에 엄마가 신문에 실린 APU의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APU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마음을 끌었던 부분은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과 일본어를 몰라도 일본 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공부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APU에서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점들

저는 1학년 때부터 「신명」이라고 하는 교내 사물놀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입학식 축하공연을 통해 신명의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 한국문화 알리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신명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 가족들과 떨어지는 외로움이 걱정됐는데 APU에서는 신명의 멤버들과 선후배들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고 타국 생활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지요.

또 GASS라는 교내 단체의 리더를 1년 동안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GASS는 오픈 캠퍼스(APU에 관심 있는 중고생 및 학부모들이 학교를 견학, 방문 하는 날)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단체입니다. 여러 국적의 멤버들과 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및 이해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APU를 소개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 또한 무척 뜻 깊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장래희망과 계획

저는 일본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해 학부에서 배운 것들뿐만 아니라 APU에서 지내며 몸으로 얻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문화 이해능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일본에서의 경력을 발판으로 해외의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 일본생활은 어땠나요?

서울 출신이라 대도시에서만 살아봐서 처음에는 지방인 벵부에서 잘 지낼 수 있을 지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의 여유로운 생활이 더 익숙하고 좋아졌어요. 벵부는 특히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 APU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여러분들도 '남들은 다 그러니까'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잘 생각해서 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APU에 가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주위의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시 모두가 걱정했던 APU를 과감히 선택한 것을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더 넓은 세계에서 펼쳐보고 싶다면 APU가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란  
10기 (APM)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3M 근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10기로 입학해 곧 졸업을 앞둔 윤란이라고 합니다. 올 4월부터는 일본 3M에 입사해 도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80여개 국에서 온 학생들, 작은 지구촌 속에서 영어와 일어로 대학생활을 한다는 APU의 장점들은 한국에서 전형적인 진학코스를 밟고 있던 저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진학을 결정하던 무렵 저는 이화외고에 재학 중이었고, 아마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다더라면 친구들과처럼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별다른 것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한국의 대학들도 글로벌 인재전형 등으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것처럼 '세계화-Globalization'은 우리사회에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APU만큼 그 단어를 잘 표현하고 경험하고 실재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되는 학업 외에도 APU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변화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학년이던 봄, 저는 나가사키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평화 의회에 리더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고등학생들은 원자폭탄과 전쟁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매년 핵무기 폐기를 위한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UN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PU의 학생들 중에는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국가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국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원자폭탄은 일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토론과 강연 등으로 모두 전쟁과 핵무기들의 위험을 가슴 깊이 느끼며 열심히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APU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환율 때문에 유학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PU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활용한다면 환율은 문제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학 당시에 받았던 4년 동안의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4만8천 엔의 장학금을 받았고, RA활동을 통해 매달 2만엔, 1학년 워크샵 수업의 TA로 1만 2천엔, 그리고 Student Activity Station 라는 Student Support Center에서의 활동의 장학금으로 1만 5천엔 정도를 받아 부모님으로부터의 보조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주는 기회를 찾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기에 APU에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짧다면 짧은 4년의 대학생활이지만 이 시기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우뚝 서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4년 동안 도전하고 성공하거나 혹은 넘어지면서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APU라는 특별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류다인  
9기 (APS)

외통고등학교 졸업



안녕하세요? 9기 류다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초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온 한국 토박이면서 남들처럼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매일 모의고사 등급 컷에 울고 웃던 보통 고교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소개로 APU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APU는 제가 목표로 삼던 대학들보다 역사도 짧고 인지도도 낮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학생들이라는 점이 안도감 섞인 기대감으로 다가왔으며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생활하며 지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APU에서 4년간 뜻 깊었던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대답은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를 수가 없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유학을 시작한 신입생이었을 때의 저는 막상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밤을 새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해변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했고 그 결과로 종종 수업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절대 후회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코리안 위크에서 점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가며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던 점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이었으며 특히 3학년 시절, 일본의 구몬교육 본사에서 APU 학생들만을 선발해 실시하는 1달간의 영어교육캠프 인턴십에 참가했을 때에는 처음으로 어리광부리는 학생이 아닌, 끈기 있게 맡은 바를 해내는 사회인을 경험한 것 같아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APU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음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전공 수업에 대해 토론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친해지면서, 한국에 있을 때와 달리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도 수많은 다국적 학생들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생활에 익숙하고 나는 더 이상 외국에서 배울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딱히 뭐라고 말씀 드릴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지금보다 좀 더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고, 아직도 배울게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학교입니다. APU에서 내려오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너 하기 나름" 입니다. 이런 말이 명언이 되었듯이, APU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만큼 나에게 몇 갑절의 경험과 자신감, 성숙함을 키워주는 곳입니다.





유용원  
9기 (APS)

검정고시



안녕하세요? 2008년 입학생 유용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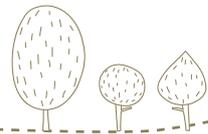
저는 APU에 와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웠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APU는 언어에 관한 특히나 일본어 교육에 관한 준비가 철저하니 일본어를 잘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루에 5시간 이상 일본어 수업을 받으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늡니다. 주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1학년 때의 일본어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본어보다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아지므로 기회가 있을 때 일본어를 열심히 익혀두길 바랍니다.

실전경험을 중요시하는 APU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많아요. 프레젠테이션은 많이 해 볼수록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을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평가 받고 좋은 발표를 참고하기도 해서, 처음엔 겨우겨우 준비하던 발표를 졸업 무렵에는 아주 능숙하게 선보일 수 있어요. APU 졸업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실력은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높이 평가 받는다고 합니다. 다국적 교수와 다국적 학생들 앞에서 매일 발표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얻는 일은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죠.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받을 때 최대한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째서 생긴지 14년 밖에 안 된 신생 학교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일까요? 또 어째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이곳 APU를 알고 유학하러 오는 걸까요? 그것은 APU가 제공하는 '국제적'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APU에서는 순수학문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APU를 선택하고 오지요. APU에서 제공하는 국제적인 환경은 다른 어느 곳보다 특별해요. 80여 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최근의 핫 이슈에 대해 생생한 토론을 즐길 수 있어요. 기숙사 주방에서 조차 티베트의 독립 문제에 관해 중국인 친구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숙사 안에 있는 온천탕 안에서 미국인 친

구에게 의견을 구하면 "우리 미국도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중국 너희들이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요. 네팔에서 온 친구에게 네팔의 정치 상황과 점점 늘어나는 거리의 아이들 (Street Children)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과 현실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타이 친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위키피디아에서 타이 역사에 대해 공부도 하고 캄보디아 친구가 있으니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인터넷 뉴스에서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뜨면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요. 세계적인 재난이나 대사가 생기면 그 지역 출신 같은 반 친구가 있어서 남 일 같지 않게 더 걱정이 되고, 미얀마 친구로부터 해안가에 살던 친척들이 지난 쓰나미로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함께 가슴 아파합니다. 이슬람권 친구들에겐 여성들이 왜 차도르를 쓰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네가 느끼는 이슬람의 종교적 법률의 불합리성 등 같은 것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지요. 또 신학적 토론이 벌어질 땐 무신론자와 크리스천, 이슬람이 한 팀이 되어 토론을 하기도 해요. 물론 모든 대화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이루어지지요.

이처럼 APU에서는 내가 근 20년간 배우고 쌓아온 지식, 사상과 문화에 대해 지금 살아있는 세계를 상대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좁았던 시야는 넓어지고 어느새 내 안의 무언가가 확 트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적응해 나가는 훈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고 (know) 이해하고(understand) 존중(respect)하는 것,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APU는 이뿐만이 아닌 학교생활 곳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슬기  
9기 (APM)

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교환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APU 9기 강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 2 학기와 3학년 1학기를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왔어요. 입학할 때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토플성적과 에세이를 준비해 2학기 때 신청, 2학년 1학기에는 조지아텍으 로 교환학생이 결정됐습니다.

원래 길눈이 어두운데다 아틀란타는 무척 덥고 습하기 때문 에 처음에는 지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환학생들 끼리의 모임이 잘 되어있는데다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온 친구 및 수강인원이 적은 수업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생기면서 점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텍에는 I HOUSE라는 국제학생 반, 현지학생 반이 사 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AP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국

적의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여는 매우 활 기찬 곳이에요. APU에서 각 나라별로 Korean week, Thai week 등을 진행하는 것처럼, I JAPAN, I GERMAN 같은 행사 들을 엽니다. 제가 있는 동안 처음으로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뭉쳐서 I KOREA라는 행사를 치렀던 건 무척 보람 있고 뿌듯 한 경험이었습니다.

APU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Global”에 가깝지만 APU를 발판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또 다른 세계를 느껴 보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교환 학생이라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할 필요 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몰랐던 곳에서의 삶과 경험에서 쌓여 지는 것들이 아주 많답니다. 여러분께서도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환학생 선발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현  
9기 (APS)

양운고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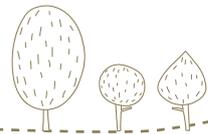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APU로의 진학은 새로운 기회였지만 여러 가지 잘 알려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의 완강한 반대로 준비는 생각보다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의 의논을 통해 한국입시를 과감히 포기하고 APU로의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중대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군대를 마치고 복학한 뒤로 AP House의 HA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AO, 즉 House Activity Organizer란 기숙사에 처음으로 입거하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이벤트 등을 기획, 실시하면서 기숙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APU에서는 교내에서 가능한 활동이 매우 많습니다. 제 경우, 기숙사 외에 FLAG(Fellow Advisory Group)라는 신입생을 위한 조직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FLAG는 신입생을 위해서 수강신청 및 학교 전반적인 학사 시스템과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설명회와 여러 파티와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배로서 학교생활에 대해 조언을 주고, 같은 유학생으로써 타국에서의 생활 노하우 전수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매우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APU의 교내 활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오피스는 전폭적인 지원 외에는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보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 및 교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PU가 다른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좋은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내활동에는 장학금까지 붙어있어서 저는 FLAG뿐만 아니라 1학년 워크샵 수업의 TA(Teaching Assistant)를 겸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APU로의 진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저는 APU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교환 유학 프로그램에도 도전해서 교환학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APU를 선택한 데 대해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APU에 와서 너무나도 값진 경험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가 준 많은 기회를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APU의 슬로건은 “Shape your world”입니다. 자립심과 적극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대학이 APU입니다.





**곽선주**  
97기 (APM)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라쿠텐 근무

### APU를 선택한 이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시작하게 된 반크 활동([www.vankkorea.org](http://www.vankkorea.org))을 인연으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6년간 펜팔을 하면서 꼭 세계 무대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는 꿈을 끊임없이 머리 속으로 그려왔습니다. 부산외고에 진학해 있던 중, 우연히 APU 설명회에 참가한 뒤 꼭 내가 바라던 학교 생활과 공부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2개 국어를 연마할 수 있는 커리큘럼, 캠퍼스 안에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하고 자유분방함을 갈구하던 저에게 딱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영어를 오래도록 공부해 왔지만 순수 국내파였기에 APU는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꿈을 실현시켜준 동시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배로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리적 친근감과 초기에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수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덕에 저와 부모님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APU에서 뜻 깊었던 학생생활

APU에서의 생활은 어느 한국의 대학교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수업 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 항상 3개국 이상의 조원들과 조율하면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것, APU의 자랑인 다문화 워크에서 타국의 전통 의상과 노래를 배웠던 일, 동아리 활동과 수업시간에 2개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 등 APU 안에서는 사소하지만 다른 대학생들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교환학생과 국제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층 친구들과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생활하면서 다양성과 이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캠퍼스 생활을 통해 얻는 다양성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인맥을 쌓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APU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APU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메시지

APU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 여러분, 저는 감히 APU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년간의 외국 유학, 그리고 2개 국어로 짜인 커리큘럼으로 수업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간을 거치기에 더 단단해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3개 국어, 4개 국어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그러한 APU의 환경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취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의 대다수 기업의 인사부에서 APU학생들을 일본의 여타 다른 대학생과 차별화된 글로벌한 인재로 인식하고 APU학생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일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APU 학생들의 진로는 폭이 넓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문을 뚫기도 하고 일본에 남아 일하기도 하며, 더러는 제3국에서 영어 일어 실력을 바탕으로 더 국제적인 일을 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꿈을 안고 글로벌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분들, 시야를 넓혀 진정한 세계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들, 아시아 각국의 친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싶은 분들, APU에 오셔서 거듭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Shape your world in APU!





**김남경**  
8기 (APS)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저는 2011년 9월 APU를 졸업하고 2012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나 학부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저 또한 개발 컨설팅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결국 지도교수님께 상담을 받아 일본과 한국의 몇몇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3학년 2학기 무렵 대학원 진학을 마음 먹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졸업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분야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입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왜 석사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하면서까지 이 공부를 하고 싶은가'를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의 면접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가이드라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대학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두루뭉실한 마음보다는 '왜 꼭 이 공부여야만 하는가'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공부와 전공에 대한 지식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지원한 네 개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고 KDI 정책대학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서울대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최우수 졸업생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4년 간의 학교 생활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성적이나 과외활동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한 방향으로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표처럼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는 법이니깐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우연숙**  
8기 (APS)

서울 경기여고 졸업  
라쿠텐 입사

APU에서는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 집니다. 보통 3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이 한국과 다른 점은 기업에서 소위 스펙보다 학교에서 쌓은 경험과 생활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능력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요한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대처능력을 키운 APU학생은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저는 일본 IT기업인 라쿠텐에서 내정을 받았을 당시에 이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한 후였기 때문에 한국CJ의 중국본사에서 3개월간 인턴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어실력이 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APU에서 쌓은 담대함과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알고자 노력하는 오픈 마인드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APU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국가별 문화주간과 제가 만들어 활동한 요리 동아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었던 것이 '당연'하게 되는 곳 APU. 그곳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장한다면 어느 샌가 다른 학생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PU 입학을 희망하시는 여러분! APU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연대감으로 뭉치는 곳, 즐기는 것이 바로 배움이 되는 곳입니다.





오현직  
8기 (APS)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APU 8기에 재학중인 오현직이라고 합니다.

2007년 봄 APU에 입학, 2011년 봄학기,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1년 6개월 남짓한 생활이지만 후배님들께 제가 경험한 것들 중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7년 가을학기, 저는 <놀이방>이라는 서클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서클들 중에서 <놀이방>을 선택한 APU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APU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인 '세계 각국 친구들과의 문화교류'를 위해서였습니다.

<놀이방>의 활동은 주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배우는 등 한국을 알리는 것들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함으로써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현재는 한국어 과목 TA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A란 'Teaching Assistant'의 약자로 소위 말하는 '수업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과목별 교수님의 조수로 들어가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또한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TA는 이렇게 보람찬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까지 된답니다.

한국어 수업 TA외에도 여러가지 TA활동이 가능하며 그외의 학내 활동을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건 어떨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중인 RA(Resident Assistan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RA는 AP하우스(기숙사)내에서 활동하는 64명 규모의 조직으로서 기숙사생들의 일본 현지 적응 및 어학능력의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해 1000여명의 기숙사생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2인 1조로 각 층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하게 되는 기숙사생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형제처럼 보살펴 주는 일,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에 있어 추억이 되어 활동하는 일, 그야말로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PU에 입학하시면 그 외에도 즐거운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할 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고민하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APU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지웅**  
8기 (APM)

민족사관고등학교/Canberra Grammar School 졸업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 대신증권 근무



안녕하세요? APU 8기 최지웅입니다. 저는 2011년 입사한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서울지점의 Corporate Banking부서를 거쳐 지금은 대신증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PU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졸업 후의 진로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본 내에서의 취업이 아닌 한국 내 일본계 회사를 목표로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여러분께 제 경험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 및 인턴십**

한국 취업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는 영어 자격시험 (토익, 토플, 스피킹 등), 제2외국어 자격증(일본어, 중국어 등), 한자능력 자격증을 들 수 있습니다. APU는 개인의 의지만 있다면 졸업 전까지 토익 900이상, 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일본계회사를 준비하는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1급은 필수이며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일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계에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이력서가 한층 충실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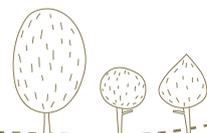
인턴경험은 APU의 강점 중 하나인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커리어 오피스에서 학교와 연계되어있는 회사들의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으로 인턴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업계와 회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은 취업 후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기에 가능한 경험을 쌓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비즈니스 일본어 1, 2 과정과 Career Development와 같은 수업을 통해 실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등 실제 취업준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실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기업을 희망한다면 이런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에 맞춘 면접준비와 비즈니스 일본어 구사능력은 다른 한국 대학출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APU라는 독특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살려 타 해외대학과 한국대학출신 경쟁자들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기념 학생 서밋에 APU 대표로 참가한 경험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의 필드 스터디, 그리고 신일본 감사법인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면접에서 활용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면접장에서 본인의 스토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APU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APU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학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APU에 입학하길 결심한 여러분들은 출신학교의 후광이 아닌 본인의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APU가 설립 된지 올해로 14주년입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선배님 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우수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에 따른 APU의 평판도 해가 다르게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APU의 명성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4년간의 학교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정성우  
8기 (APM)

안양 신성고등학교 졸업  
닛산 자동차 근무



### APU를 선택한 이유

저는 한국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입시제도의 불합리성과 부조리함에 대해 불만 가득한 학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배운 내용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압도적인 연습과 암기를 통해 나온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기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좋은 점수로 평가 받았다 해도 이미 무언가 혁신적인 것을 해낼 힘은 떨어지고, 좁아터진 사고로 대학에서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사회로 나가는 일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알게 된 것이 APU였습니다. 매일 약 80여 개 국의 학생들과 토론하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 받는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한 학교, 또한 영어와 일어를 동시에 마스터 할 수 있다는 점은 유학 경험이 없던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합격한 대학교를 포기하고 APU를 선택했습니다.

### APU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첫 전공 수업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 그룹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편협한 사고에 정확한 답변만을 찾았던 저는 사전적 정의만을 고집했고 그룹원들은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러나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각자만의 정의를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4년간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본질을 파악하고 남과 다른,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통해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습니다.

### APU학생으로서 시작한 일본 취업

한국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취업은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대학성적보다 과외활동을 많이 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을 4년간 충분히 쌓은 저는 이력서나 면접에서 그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대학생활 도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이 아니라 APU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활동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그 활동으로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든 뻔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APU와 APU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 APU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대입이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이고 그것이 해외라면 더더욱 고민하게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APU라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후회하지 않을만한지 현재 입학 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조차 불안하게 여겨지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물론 한국의 소위 명문대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국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APU를 다닌 지난 4년간 이곳에 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모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저를 비롯한 선배들이 이루어 낸 것보다 더욱 더 멋지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김안다  
8기 (APM)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토레이 근무

### APU에서 특별히 힘쓴 활동과 그것으로부터 얻은 점

「인연의 소중함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자세」

저는 APU 재학 중, GBLP(Global Business Leader Program)라고 하는 일본 문부 과학성과 경제 산업성의 지원을 받는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2년간 공부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 전공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본 기업의 역사와 경영법,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학업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16학점을 더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학교 생활이 때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에 관하여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외활동으로는 GASS(Global Admissions Student Staff)라고 하는 APU의 학생 단체에서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GASS는 APU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실시하는 단체입니다. 대학 3학년 때에는 약 70명의 멤버를 이끄는 부 대표로서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의 학생들에게 APU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을 이끌고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학업이지만 저는 GASS에서의 활동을 통해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도 가득 얻었습니다.

### 입사한 기업, 업종을 선택한 이유

제가 입사한 토레이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재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까지 다양한 산업소재를 생산하는 화학 소재 전문기업으로, 탄소 섬유를 비롯한 첨단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사업과 차세대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학 업계는 일본에서도 가장 촉망 받는 업계이며, 토레이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들을 보유해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장래의 꿈과 목표

장래의 목표는 일본 기업의 외국인 CEO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막연히 그리는 꿈이지만 남들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개척하고픈 희망이 있습니다. APU의 4년간의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능력들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 APU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드물게 자신의 미래지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수험을 앞두고 스스로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반드시 가야하는 목표가 아닌,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학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꿈을 가질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의 학창시절을 좀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공부도 좋지만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고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APU라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미있고 독특한 대학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재욱**  
8기 (APS)

안양 신성고등학교 졸업  
베를린 자유대학 대학원 재학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한국에서만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못하여 평소에 유학이라는 단어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APU에 다니는 동안 학비면제와 함께 매 달 10만 엔의 생활비 장학금도 받아 부모님의 승금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유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APU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합격과 동시에 결정되는 학비 장학금 외에도 대학교 입학 후의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입학하는 시점에서 결정되는 4년간의 APU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종류의 생활비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받아놓은 성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지만 1학년 2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많아집니다. 가끔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성과 과 에세이 그리고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경험상 1학년들은 학교 성적이 처음에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이유서와 면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시기가 가까워지면 홈페이지 시작화면을 학교 장학금 홈페이지로 설정하시고 새로운 장학금이 올라오지 않았나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내에서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아르바이트에다 동아리를 접목한 활동이 가능하여 좋은 경험이 됩니다. 대표적인 일이 RA(Resident Assistant)와 LA(Library Assistant)입니다.

RA(Resident Assistant)는 APU의 기숙사인 AP 하우스에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일본 혹은 베트남에서 잘 적응하고 나중에 아파트나 맨션을 얻어 나갈 때 무리 없이 혼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RA에 선발되면 매달 2만 엔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RA 모집 공고가 뜬 뒤 1차 서류 전형, 2차 단체 면접 그리고 3차 개인 면접을 모두 통과하면 RA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둘 다 능통한 편이 일하기 편하지만 둘 중 하나만 제대로 구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LA(Library Assistant)가 있습니다. 이들은 APU 도서관에서 사서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역시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1차 서류 전형과 2차 개인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서 분들이 일본 분들이라서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더 중요시합니다. 시급은 750엔으로 보통 한국의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저는 RA와 LA를 해보았지만 APU 캠퍼스에는 RA와 LA 말고도 기숙사 청소 일, 학교 식당에서의 일, 학내 생활 협동조합에서의 일, TA(Teaching Assistant, 교수님을 도와 수업을 진행하는 일) 등 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습니다. 국제적 관광도시인 뱌부에는 학교 밖에도 APU 학생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이라면 항상 APU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이 APU의 교육 비전과 맞아서 꼭 APU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한국의 대학교에서 같은 한국인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80여 개국 많은 나라의 친구들과 세계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입학 준비를 열심히 하여 학비 장학금을 받을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당장은 집에 돈이 없어도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하여 생활비 장학금을 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꿈을 위해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절대 돈 때문에 꿈을 포기 하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말에는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더 넓고 나은 교육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서울이 아닌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인서울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을 때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닌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를 아우르는 일이라면 APU는 그 꿈을 위해,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큰 힘을 얻어줄 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김유진  
8기 (APS)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University of Wyoming 교환유학



안유나  
8기 (APS)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제 경우는 대학 입학 전부터 미국에서 교환유학을 꿈꿔왔기에 입학하자마자 교환학생 가이드스에도 참석하고 TOEFL 성적도 준비한 끝에 1년간 와이오밍 대학으로 교환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엔 한국유학생이 거의 없는데다 당시 저 또한 APU에서 유일하게 파견된 터라 현지 친구를 만들 기회가 많았어요.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맞은 추수감사절에는 기숙사친구 5명으로부터 초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숙사와 오케스트라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APU에 돌아와서도 편지를 주고받고 역으로 향수병이 생길 정도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었던 인플루엔자를 앓았고 그리운 한국 음식을 파는 곳도 없는데다 수업은 읽고 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눈물도 꽤나 흘렸지만 교수님을 자주 찾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덕분에 사고의 폭도 넓어져 배짱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멋진 자연경관,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 폭넓으면서도 심도 있는 수업들…… 자신에게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얼마든지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교환유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조언한다면 준비와 도전이 정말 만만치 않지만 꼭 해볼만한 값진 경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APS는 Asia Pacific Studies의 약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환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APS에서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계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며, 세부적으로는 국제관계, 미디어, 관광학, 환경 개발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과목들은 지구촌 사회라고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APS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위에 제시한 분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여 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특정 국가의 시점에서만 바라보기 십상인 문제를 더욱 더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국가, 집단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문제를 통합하여 서로가 납득할만한 방향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이론과 지식습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며 3학년부터는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소규모 수업이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인 교수의 조언과 도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APS에서는 국제관계, 환경학, 정치학, 관광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수진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어 4년을 공부하면, 졸업 후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APS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선영**  
8기 (APM)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일본삼성 (Samsung Japan) 근무



**차현진**  
8기 (APS)

대구 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영국 레스터 대학 교환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삼성 신입 정직원 채용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입사한 엄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시작하여 학교가 위치한 규슈 뿐만 아니라 오사카, 동경 등 대도시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렀습니다. 유학생과 일본인학생이 한데 어울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APU의 환경과는 달리 실제로 제가 맞닥뜨린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APU의 제도를 잘 활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직활동을 할 때 필수인 일본어 존댓말 사용법과 직장에서의 기본 매너 등을 비즈니스 일본어 1, 2에서 배웠고, 일본 우수기업의 설명회와 면접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온 캠퍼스 리크루팅' 제도를 통해 학교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폭넓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학기간 내내 AP하우스에서 생활하고 그 중 2년을 RA로 활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나와 다르고 해서 결코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직활동에서 제가 APU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풀어나갔고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APU에서는 일상인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연구, 발표 과정, 함께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 활동 자체가 이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유일무이한 APU만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소중한 인연들은 저를 비롯한 APU의 모든 이들을 성장하게끔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 가을학기부터 교환학생으로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레스터 대학은 훌륭한 교수진과 학생의 높은 만족도로 영국 2008/9년 올해의 대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학기에는 여왕님이 캠퍼스와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APU에서 늘 영어로 강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강의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었으나 국제관계, 정치 학부에서 있었던 매주 세시간의 소그룹 토론수업이 영국 학생들에 비해 유럽연합이나 영국 정치에 배경지식이 적은 저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토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국제 이슈에 대해 영국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정치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열리는 많은 파티들과 영국 국내 여행으로 영국인들과 영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겨울방학 때 프랑스 친구 집에 머물면서 했던 프랑스 여행은 당시 일어났던 철도 파업으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에게 매우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APU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선발이 있는 뒤에 한 학기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플 성적 준비와 신청을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PU가 제공하는 교환유학의 기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을 통해 APU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연준**  
8기 (APM)

분포고등학교 졸업  
클라레 화학 근무



**AP하우스와 RA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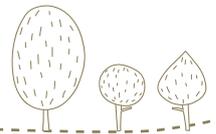
APU에는 AP House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국제학생과 일본학생의 비율이 7:3이며, 약 1,300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생각 등,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의견충돌이나 의도치 않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유학생들이 일본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숙사생들끼리 서로 어울리며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A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학급의 반장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64명의 RA가 각 층별로 2명씩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기숙사의 청소를 하는 등, AP House에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RA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기숙사 생들을 위한 파티를 짚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달까지 기획하고 준비해서 끝났을 때 많은 학생들로부터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어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기숙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수뇌부회담 통역봉사활동**

2010년 APEC수뇌부회담은 APU가 있는 벳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요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저에게도 무언가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여 통역에 지원했고, 실제로 일본어, 한국어, 영어를 사용하여 각국 참가자들간의 간단한 대화를 통역하였습니다. 통역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제 언어실력의 한계였습니다. APU에서 공부하면서 언어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 있었건만 생각과 달리 간단한 대화에서도 동시통역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이후 언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대학별로 '오픈 캠퍼스'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학교를 개방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생을 늘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APU에는 오픈 캠퍼스를 담당하는 동아리(GASS, Global Admissions Student Staff)가 있었기에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입부(入部)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반 서클과는 달리 수당을 받아가며 학교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므로 들어가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주된 일은 학교 견학, 한국어강좌, 각종 레크레이션 기획, 개별상담 등으로 다양합니다. GASS활동에서 얻은 것 중 하나는 일본어능력의 향상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오시기에 정중한 일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취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공부한 존경어나 겸양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다른 한가지는 '보람'이었습니다. 오픈캠퍼스 때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학생이 다음학기에 입학하여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대학에 갈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정할 수 있었어요! 오빠 덕분이예요! 저도 GASS에 들어가서 다른 수험생들이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말해준 학생도 있어서 제가 한 일에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희재**  
7기 (APS)

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토레이 근무

저는 APU를 졸업하고 합성섬유, 탄소섬유 등 신소재 개발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화학회사 '토레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는 매년 APU의 On campus recruiting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APU의 국제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APU에 입학 후 저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영어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 토론 등 해외 경험이 없던 저에게 하루하루는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룹 활동 중에서 인도친구의 낯선 인도식 영어 발음과 아프리카 친구의 속사포 랩 같은 영어를 알아듣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공부 속에서 쌓인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친구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외국어 구사 능력보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 가짐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PU에는 타 대학에는 없는 독특한 환경과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다른 가치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장벽을 뛰어넘을 각오가 있고 그것을 즐길 준비가 된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정과 개척정신을 가진 APU 출신 후배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정경**  
7기 (APM)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후지 제록스 근무

저는 4학년 1학기에 사무기기 및 IT솔루션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후지 제록스로부터 입사내정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일본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APU에 입학하면서 사물놀이 팀 "신명", AP하우스 RA(Resident Assistant), 학교 홍보 동아리인 "GASS",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과의 학술 교류회 등 여러 가지 과외활동에 활발히 참가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학업과 병행하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싶다는 욕심에 쉬지 않고 달려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리츠메이칸 대학과의 학술 교류회에서 리더를 맡아 참가자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담당하였던 경험은 취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80명의 리더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과 소수의 입장이기 마련인 외국인으로써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APU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실제 취업활동에서 남과 나를 차별화 시켜주는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려던 노력,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던 자세, 나의 무대를 세계로 옮겨나가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처럼 값진 배움과 결실을 준 APU의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APU졸업생이기에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꿈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APU에서 더 큰 활약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박영석**  
7기 (APM)

중동고등학교 졸업  
후지쯔 근무



**개성으로 똘똘 뭉친 APU**

자기네 동네보다 벳부가 정말 큰 도시라고 자랑스러워 하는 미국인, 일본자위대에 자진 입대했었고 세계여행을 꿈꾸는 일본인, 메이드와 운전기사를 거느린 태국 엘리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UN입성을 꿈꾸는 베트남인, 기숙사 주방에서 직접 생선을 손질해서 기막힌 음식을 만들어 내는 중국인까지 APU는 정말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APU란 대학으로써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듯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온 학생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과 서로 어울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적 자산이 더욱 많았던 곳 같습니다. 유학이라면 흔히 부모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은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는 그만큼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아리활동은 물론 기숙사 도우미(RA), 수업조교(TA), 일본 고교학생 단기 프로그램 조교(Summer Camp TA)등등 APU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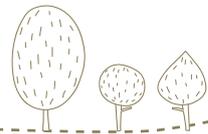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저 또한 얻은 것이 많았고 자기발전으로 이어지고 융통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APU는 막연한 대학생활이 아닌 무언가 즐겁게 스스로의 열정을 쏟아 부을 학생다운 학생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회로 가득한 APU, 주목 받고 있는 APU**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부딪힙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면 영어, 일어는 물론 각종언어를 섞어가며 열띤 토론을 하곤 합니다. 회사 인사부에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얻어진 커뮤니케이션 능력, 융통성, 이해력을 기른 인재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내수 시장의 악화와 한발 늦은 해외진출로 인해 글로벌인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APU 학생의 배경과 능력에 매력을 느끼고 매년 채용을 위해 찾아오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그 어느 대학도 갖추지 못한 APU의 환경에서 단련된 학생이라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문과계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APU는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할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귀국한 후 보통 한국 학생들처럼 수능을 준비하던 저는 일본유학-APU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대학생활보다는 학생다운 열정이 있는 생활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APU는 학생이 주(主)입니다. 이벤트리더를 해도, 조교를 해도 학생이 담당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APU, 또는 일본 유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APU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뒤, 마침내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신다면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권지훈  
7기 (APM)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SONY 근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APU에 7기로 입학했는데, 어느덧 7년이 더 흘러서 14기가 입학하네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졸업한 선배 수도 적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선배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는 학교로 도약했습니다. 저도 작년 겨울에 APU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 차례 면접을 치른 결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SONY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APU, 그리고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느낀 APU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기 나름인 학교'입니다. 일본 큐슈에 있는 작은 온천 마을, 그것도 산 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학교에서 자신의 뜻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물놀이 동아리 신명 활동을 비롯해 AP하우스 기숙사 도우미인 RA 활동, 국제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알려주는 TA 활동, 전공과목 선생님을 돕는 수업 TA 활동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유학생 채용을 나날이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막상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유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대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APU를 직접 방문해 채용을 하는데 이것을 온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온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하는 기업은 APU에서 일정수의 학생을 반드시 채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용의 기회가 온 캠퍼스 리크루팅을 이용한다면 혼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구직 환경에서 그 동안 자신이 학교에서 열정을 갖고 해온 활동을 어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PU는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교입니다. APU를 사랑하는 선배로서 앞으로 우수한 후배들이 더욱 더 좋은 학교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면 그 지름길은 APU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APU로 입학을 결심한 어린 날의 도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류웅선**  
7기 (APS)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에바라 제작소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7기로 입학한 류웅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졸업생으로서 예비 후배들에게 제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APU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예전부터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또 다른 작은 지구촌과 같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APU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4년을 보내면서 동아리활동, TA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가장 뜻 깊었던 경험은 학교에서 열린 국가간 영토분쟁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그때 한, 중, 일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영토문제에 대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토론회는 오이타 지역 NHK 방송을 타고 오이타 전 지역에 방송되기도 했던 터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대표로 참가했지만 서로간에 민감한 문제도 진정한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써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된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80여 개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영어와 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동아리에서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기에 세계화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이들과 친구가 되며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도 APU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들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진정한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APU.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지은**  
6기 (APM)

명성여자고등학교 졸업  
덴마크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교환유학

저는 가을학기 동안 덴마크의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환유학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주위에서 왜 덴마크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교환유학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또 덴마크는 비교적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APU에서는 느낄 기회가 적은 유럽의 상황에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을 선택했습니다. 이 학교는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입니다. 동양인 학생수가 아주 적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은 APU와 똑같았기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이나 시험방식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아주 달라서 그 부분에선 고생을 했습니다. 익숙해질 무렵 교환유학 기간이 끝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에서 한 시내투어는 코펜하겐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북유럽으로 교환유학을 다녀온 것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PU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었다고 한다면, 짧은 교환유학은 새로운 세계를 알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폭넓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APU입학이 왼쪽 날개를 얻은 것이었다면 교환유학에서는 오른쪽 날개를 얻어 균형을 맞추게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교환유학을 다녀온 것은 이후 취업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 제가 살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APU에 입학해서 꼭 교환유학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생활, APU 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 여러분만의 장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예지**  
6기 (APS)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ORIX시스템 근무

저는 일본 금융 대기업 중 하나인 ORIX에서 시스템 부문을 담당하는 'ORIX시스템'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온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한 취직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유학생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던 '학교 밖 일본사회'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은 취업활동은 다른 일본 학생들과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힘든 경험을 통해 4년간의 APU 유학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뒤돌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면접, 이력서 등에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APU에서의 유학생생활은 한마디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APU만의 독특한 환경을 통해 다문화에 이해하고 일어, 영어를 활용한 외국인 친구 만들기부터 시작하여 클럽활동까지 4년간 꾸준히 지속하면서 학교 안 교류뿐만이 아니라 벅부 시민들과의 교류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학년 때에는 세미나 활동도 참가해 담당 교수님께 취직활동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함께 졸업논문 연구 과제를 토론하는 등, 학술적인 면에도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조교로서 수업에 참가하는 TA(Teaching Assistant) 아르바이트와 통번역아르바이트, 학교 생협(CO-OP)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APU에서 얻은 도전정신을 통해 겪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PU는 도전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과를 이루어 내기에 최적의 학교입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학업과 대학생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참가하고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꾸준히 자신감을 가지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성적과 취직은 그에 당연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입학하시기 전부터 성적과 취직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알차게 학교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즐거움'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APU의 주축이 되어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유진욱**  
6기 (APS)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스미토모 상사 근무

### APU를 선택한 이유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입니다. 경북, 그리고 김천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회지를 동경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학 또는 서울로의 상경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에도 흥미가 생겨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해 공부하고 있던 중 · 고등학교에서 열린 APU의 설명회에 참석해 피부색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환경이라고 생각하여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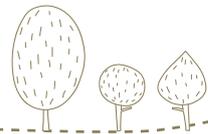
### APU에서 얻은 것

제가 APU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경험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오기까지 공부만 조금 잘하는, 다른 것은 모두 부모님이나 남에게 의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뒤조차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와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참여한 학생단체활동에서 일본학생과 유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을 목격하고는 그것을 고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노력을 하다 보니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에서 대표가 되었고, 나와는 다

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과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수단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각각 멤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각종 단체활동, TA, 서클활동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좋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하여 그때까지 제가 가지지 못했던 넓은 시야, 리더십 등을 키워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최고의 명문대생들도 감히 쉽게 넘보지 못한다는 종합상사로 부터 내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PU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인생이 걸린 진학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안하지요. 대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 길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APU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가질 불안이라 생각합니다. 명문대 출신이라고 모두 다 멋진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PU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 몫을 찾아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위한 환경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환경으로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APU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여 단순히 똑똑한 인재가 아닌, The One & Only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다혜

6기 (APS)

분당대진고등학교 졸업  
University of Wyoming 교환유학



### 김태희

5기 (APM)

호주 Presbyterian Ladies College 졸업  
HSBC 근무

저는 미국 와이오밍 주립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APU에서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PU에 입학하기 전부터 몇 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환유학이었습니다. 저는 교환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일찍 알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환학생의 선발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נס에 참석하는 등, 교환학생을 뽑는 기준 중 하나인 학점과 언어성적, 에세이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1차 서류 통과 이후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질문은 '만약 우리가 당신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대답하고 왜 나를 뽑아야만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 어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하여 시작된 교환유학 생활은 저에게 소중한 배움과 즐거운 경험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풋볼 경기나 농구경기도 가고 미국인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현지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비서구권 역사 수업에서는 일본도 한국도 아닌 제 3국에서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기르게 되었고 교환유학 중에 일본어 실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와이오밍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번역과제를 받아 1:1로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해 용돈을 벌며 아르바이트지만 미국에서 일을 해보는 기회도 가져왔습니다. 1년 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 문화와 대학교육을 접해보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APU는 기회가 많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찾아 다니는 사람에게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APU는 저에게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준 학교입니다. 미래의 후배님들도 APU에서 도전하여 많은 꿈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저는 APU를 졸업해 세계적인 은행 중 하나인 HSBC에 입사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시작한 취업활동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연락해주는 회사들이 있었고 힘들 때면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취업활동을 시작하지 두 달 후에 저는 HSBC에서 내정을 받았고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년간의 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일본어 한 마디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일본이라는 땅을 밟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과 설렘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일본이라는 곳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흥미로운 학교 생활은 제 삶을 바꾸고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학교보다 다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학교 덕분에 저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여러 친구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과 많은 이야기들로서 세상을 다각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PU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자기개선이 가능한 환경, 배울 점이 많은 선배배가 무궁무진한 자산이며 나에게 열려있었던 기회였고 이 모든 것에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한 번 강조합니다만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길, 그리고 자신의 땅에 멋진 나무가 뿌리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철**  
5기 (APM)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아사히카세이 근무



**유철성**  
5기 (APM)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미쓰비시 상사 근무

“세계를 무대로 활약 할 힘을 길러주는 곳, APU”  
 저는 APU에서의 쌓은 특별한 경험을 살려 5대 일본 화학 기업 중 하나인 아사히카세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 목표는 APU만이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남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캐나다로의 교환 학생, 일본문부성이 주최한 국제환경캠프, 교내 한국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덕분에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과 화합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APU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활동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학벌주의가 심한 일본기업에서의 면접이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류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뛰어난 인재들이다”라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동경대나 게이오, 와세다 등의 학생들과 동격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APU라는 국제대학에 온 것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최근의 시점에 남들보다 성공적으로 취업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두고두고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야말로 일본어 영어 그리고 모국어에 능통해 질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PU만의 독특한 환경과 거기서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은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평생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APU 만의 독특한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 갈 후배 여러분의 활약 또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색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APU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20대에서 가장 큰 두 가지 터닝포인트가 바로 APU에 입학한 것과 APU를 통해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APU에서의 4년 동안 80여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세계를 이해하는 저만의 방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경험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여행을 비롯한 제가 할 수 있었던 어느 활동보다 저의 인생에 있어 더욱 생생하고 튼튼한 기초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노하우들은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서도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기업들이 APU졸업생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세계적인 시야 때문입니다. 제 경우는 영어기준으로 입학했지만, 영어-일본어-제 3외국어의 철저한 언어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꾸준히 외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었고 졸업에 즈음해서는 현지 기업에 취업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펼쳐진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기회나 터닝포인트는 수없이 찾아오지만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잡아낼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APU의 든든한 생활지원과 취업지원,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국적 친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교수님들의 지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APU에서의 추억을 감사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임예슬  
5기 (APS)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일본 IBM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3월에 졸업해 일본 IBM에 입사한 APU 5기 임예슬입니다.

일본 IBM의 경우,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는 교내에서 했으나 면접 때부터는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들과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IBM에 지원한 뒤에도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서 기업연구를 했습니다.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영어시험과 수학시험 및 적성검사 등을 봤는데 사실 APU 학생이라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학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적성검사 쪽이 난관인데요, 일본어로 보기 때문에 미리 책을 사서 나오는 단어 등을 익숙하게 해 두지 않으면 시험 잘 치시고도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서류검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첫 그룹면접을 봅니다. 그룹면접에도 종류가 여러이지만 IBM은 여러 정보를 나눠 가지고 구두 발표를 통해 정보수집을 하여 일종의 결론에 도달하는 형식의 면접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열심히 토론에 참가하시고 또 옆 사람에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이용한 방법인데 이것도 저 것도 잘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죽 들어보고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룹면접은 개인으로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기에 의견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과 3차 면접은 개인면접이었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

이 관건입니다. 말을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생각나는 대로 길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합격하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취업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종합적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나 서클 활동에 참여하세요. 일본에서 취업할 때는 성적도 보지만 공부 외에도 또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도 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APU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일본어 관련 수업을 들으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일본어 과목에서 이력서 쓰는 법이라던가 면접에서 중요한 것들 등을 배우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활동 중 스트레스로 힘들다면 혼자서 알지 말고 주위 친구들이나 커리어 오피스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PU라는 곳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환경, 독특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취업시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APU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혜원  
5기 (APM)

해운대여자고등학교 졸업  
Oklahoma University 교환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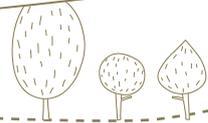
APU는 국제 대학교이고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문화와 어울릴 수 있지만 영어 기준으로 입학한 저는 일본어 실력을 쌓느라 입학한 후 영어에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속상하여 영어를 쓰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학교가 있지만 미디어를 전공으로 살리고 싶었던 저는 미디어 분야에서 유명한 오클라호마 대학을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1차 서류면접과 영어 인터뷰 그리고 지원학교의 허가를 받고 1년이라는 준비 기간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APU의 미디어 수업에서 이론 중심이었다면 오클라호마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직접 대본을 쓰고 카메라로 찍고 편집을 하여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에 참여하고 방송 마케팅에 관한 수업으로 여론조사와 수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미디어 업계에서 통용되는 실질적인 기술과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영어실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교환학생이 많은 편이라 전세계로부터 연간 200명에 가까운 교환학생이 있어서 작은 APU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PU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학교라면 오클라호마 대학의 교환 학생들은 유럽과 남미 학생들이 주를 이루어 저는 더욱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원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적을 관리하고 꾸준히 토플 성적 또한 준비하길 바랍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패스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과 수업에도 토플에서 공부한 단어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교환학생 선발에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2학년 때 신청해서 3학년 때 다녀왔지만 왜 1학년 때 신청하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 나는 그곳에 왜 가려 하는지, 그리고 무

엇을 원하고 공부하고 싶은지를 반드시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혼자서가 힘들다면 선배들의 경험담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배운 편집기술과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드라마 사업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스스로의 노력과 APU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뒷받침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용건**  
4기 (APM)

순천고등학교 졸업  
미쓰비시 상사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APU를 졸업해 미쓰비시 상사 최초의 한국인 정사원으로 채용된 이용건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그야말로 명문대 출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동경대, 와세다대 출신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했기에 지원 전부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PU생활에서 배운 도전 의식과 끈기, 그리고 학교의 충실한 서포트로 무사히 취직활동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합상사에 지원하게된 계기는 APU의 수업중에 하나인 필드스터디에 참가한 것으로부터입니다. 당시 2주간 교수님과 이란을 방문하였는데 현지 인프라시설의 미비에 의해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장래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종합상사라면 「국제적인 감각」을 활용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고 플랜트 및 철도시스템 건설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때 어필한 결과, 면접관의 흥미를 끌었고 결국 채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APU의 국제적인 환경을 이용한 독특한 경험들이 바로 타 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APU는 개교한지 14년 된 학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활기 넘치고 적극적이며 도전정신에 투철한 것이 APU학생의 특징입니다. 일본의 대부분 일류기업들은 인재 채용 시 학력이나 자격증보다는 대학생활 내용과 개인의 성장가능성, 인성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계적 불황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APU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PU에서 보낸 4년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유익함으로 가득했으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큰 버팀목이 되어줄거라 믿습니다. 국제사회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정병욱**  
4기 (APM)

전주 영생고등학교 졸업  
이랜드 경영전략실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APU에 4기로 입학해 지금은 이랜드 그룹에서 근무하는 정병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휴학과 복학 그리고 군 입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휴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휴학과 복학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는 점 입니다. 가이던스에 결석을 하면 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 몇 달 전에 실시되는 휴학 가이던스에는 꼭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학할 때는 휴학 중에 복학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 작성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확인한 뒤 한번에 성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복학에 관한 일체업무는 본교 스튜던트 오피스로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군복무 문제. 언젠가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듯이 최대한 빨리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학업 면에서 보면 1학년 때는 기초 소양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군복무 후 복학해도 학업적으로 단절되는 느낌이 덜 들고, 군대를 빨리 다녀오면 입학 당시의 외국 친구들도 다수 남아 있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의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기본적인 언어 공부는 틈틈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대 안에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영어 기준의 학생인 경우 일본어 능력시험과 같은 자격증을 목표로, 일어 기준의 학생이라면 TOEIC 이나 TOFEL 공부를 꾸준히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복학해서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장 사용해야 할 외국어이니깐요.





**김범진**  
4기 (APM)

여수고등학교 졸업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인턴십



**백재한**  
4기 (APM)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군대를 제대한 후 바로 복학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에서의 취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었던 저는 그 때문에 APU로의 유학을 결심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 할 무역 분야에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영어기준으로 입학했지만 APU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본의 지방 신문사에서 번역기자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는 일본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제대 후 내 목표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따져보았더니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의 인턴십은 관심 분야였던 무역에 대해 알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JETRO는 무역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KOTRA와 같이 JETRO는 일반 민간 무역회사와는 달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일본과 전세계 여러 국가간의 무역을 말 그대로 진흥시키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학교를 통해 동경에 있는 JETRO본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뒤, JETRO본사에서는 한국인인 저를 JETRO 한국사무소로 파견했고, 그곳에서 저는 조사 팀과 투자, 사업 팀에 소속되어 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JETRO한국 사무소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조금이라도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일본인 직원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고문으로 계시던 어느 일본인 직원께서는 취직활동을 앞둔 저에게 미쓰이 물산에서 일한 경험담 등을 통해 실무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인턴십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왔을 때, APU 커리어 오피스로부터 JETRO본사가 저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JETRO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RA들은 주변으로부터 ‘RA힘들지 않으세요? RA저는 못하겠는데’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학년 시절 생각 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듯해서 멋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P 하우스에서의 생활은 APU를 떠난 지금까지도 그림습니다.

산 정상에 위치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기숙사. 하지만 이곳의 생활을 즐기고 또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AP하우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80여 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한곳에 뒤섞여 생활한다는 것은 모양새 만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문화 충격 같은 것을 상상하는 학생들은 조금 실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문화 충격이 아니라 세계는 둥글다는 말을 느끼거든요. 제가 여러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과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눌 때 언제나 느꼈던 것은 때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느끼는 이질감이란 것이 문화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개인에 의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복학하면서 시내에 방을 구해 산 지 반년 만에 학교 기숙사로 RA로 지원해 들어갔던 건 후배들의 뒤를 돌봐준다는 구실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웠던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앞서서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걸치며 설새 없이 달려오느라 주변을 돌아 보지 못했던 나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 이 곳 APU. 제게는 단순히 모험심이 아닌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APU를 통해 오감을 열어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곳에 동화시키며 같이 느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남 원  
3기 (APM)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스미토모 신탁은행 근무

제가 취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미리 준비하라” 였습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3학년 2학기부터 취업활동을 준비하여 4학년 1학기 안에 내정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내에 내정을 받지 못하면 취업 재수생이 되어 내년도 졸업하는 후배들과 경쟁해야 하며 아예 대졸신입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의 온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이나 기업들의 채용일정을 보면 4학년 1학기 초, 즉 3월~5월 사이에 몰려 있기에 3학년 2학기를 안이하게 대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원하는 분야, 업종과는 상관 없이 ‘취업만 시켜 준다면 어디든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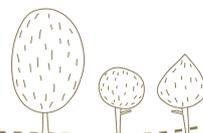
만약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일류 기업에 가고 싶다면 3학년보다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을 비롯하여 관련 자격증 및 본인의 스킬 향상은 물론이며 해당 업종의 인턴십,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수강 가능한 세미나 수업 선택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 학교의 커리어 오피스 및 리크루팅 회사에서 주최하는 취업 가이드의 참석부터 리츠메이칸 대학 OB간담회 참석을 통한 OB 정보수집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한 정보수집 역시 해당 기업의 시험유형, 면접내용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취업활동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 인재를 뽑느냐는 중요한 이벤트 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및 일부 대기업, 종합상사 쪽에서는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상에 공지된 채용일정이 시작하기에 앞서 빠르면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하여 그 이듬해 3월까지, 즉 정식 채용일정이 시작하기도 전 약 60~70%정도의 인원을 미

리 뽑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철저한 자기분석을 통하여 적성을 파악하여 진심으로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APU의 취업지원 시스템이나 온 캠퍼스 리크루팅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역시 학교의 온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하여 입사한 케이스 입니다만 저의 경우 온 캠퍼스 리크루팅이 시작하기 전 약 2달 정도 동경에서 직접 취업활동을 하며 발로 뛰어 보았습니다. 아쉽게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너무나도 우수하였던 다른 지원자들에게 기죽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양분이 되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온 캠퍼스 리크루팅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APU가 개교한지 이제 14년이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느끼는 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PU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학력과 성적에 의한 필터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여러분의 가능성과 미래를 판단하여 인재를 채용합니다. APU에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넓은 세계에서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희망과 야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가 있다면 APU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민상**  
3기 (APS)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졸업  
후지쯔 근무



**한상원**  
2기 (APM)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히타치 국제전기 근무

저는 학교에서 진행된 온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후지쯔에 입학했습니다. 3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작한 취업활동은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활동을 해나가는 동안은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후회 없는 도전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회사가 방문했고 내용 또한 알차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일본 기업들이 유학생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국제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굉장히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준다는 점입니다. APU가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높은 취업률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대학이 아닌 일본 APU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APU만에 독특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APU와 같은 구성 컨셉으로 세워진 대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 후 몇몇 일본 대학이 APU를 모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 정도로 APU는 일본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80개국 이상의 다문화, 다언어 환경 안에서 4년간 함께 생활 하면서 학생들 개개인은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각의 폭과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APU에서는 다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화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협동 과제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며 존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 감은 물론 글로벌한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고 저의 인생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APU라는 멋진 무대에서 꿈을 펼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복무 후 3학년으로 복학을 하자 바로 닥친 문제가 취업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4학년 1학기를 전후로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학을 하고 한 학기를 마친 여름방학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가장 고마웠던 점은 학교가 외국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무척이나 신경을 써준다는 점입니다. 동경이나 오사카로 직접 가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과 학교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나가 구직을 한다는 것은 일본인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 하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 외국인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입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온 캠퍼스 리크루팅'을 가지고 있는 APU 출신들은 다른 어느 대학의 유학생들보다도 유리하고, 학교측은 기업의 인사팀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PU의 도움 외에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동안 기업의 면면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와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하고 교수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알기 힘든 현실에서 기업 분석을 해보니 그 회사에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동기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일본제철'에서 인턴십도 경험했습니다.

APU의 취업률은 일본 최고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서포트는 타 대학과는 확연히 다르고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서포트도 결국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활용 여부가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APU는 국제대학입니다만 국제대학으로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고생하며 유학하는 의미가 퇴색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영  
2기 (APM)

분당 서현고등학교 졸업  
퍼스트 리테일링 근무



안녕하세요? 2기 김대영입니다.

저는 APU의 초창기인 2001년도 4월에 입학, 도중에 2년 휴학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007년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3학년 말 겨울방학 때부터 4학년의 여름방학 때까지는 졸업 후 진로가 결정됩니다. APU의 졸업 후 진로는 대략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취직, 두 번째가 대학원 진학입니다. 그리고 그 진로에 맞게 대학 생활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일본 현지에서 취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 성적이 한국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에 클럽활동, 봉사활동, 교류활동, 여행, 단체활동(군대도 포함됩니다) 등에 더 충실한 대학생활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학생의 성적보다 경험치를 더 많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도 그냥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자신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으시다면 성적이 최우선인 대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A+와 못해도 A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해요. 성적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세요. 점점 나아지는 상승곡선의 GPA 또한 좋은 평가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은 '영어'입니다. 일본대학이든 외국대학이든 대학원생을 뽑을 때는 영어를 많이 봅니다. 학계의 고급자료는 거의 영어로 되어있을 뿐더러, 영어로 자신의 대학원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논문 포함)는 대학 랭킹을 계산할 때도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능력은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면 APU와 보통의 일본 사회 사이의 현격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APU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보통 일본 사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좋은 의미에서의 다름이자 충격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일본의 사회 및 조직들 중에서 APU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면 한국적 사고 및 문화와 일본의 현실 사이의 적당한 쿠션 역할을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APU를 보고계신 학생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 나를 지원하기 위해 피땀 흘려주시는 부모님들께, 언제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에 감사하며 지금의 환경에서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진  
1기 (APM)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대신증권 근무



안녕하세요. APU 1기생 김윤진입니다. 저는 대신증권 본사 리서치센터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즈음 역시 취업경쟁이 대단히 치열했는데요, 증권사 입성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APU 졸업생이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 후 성장 가능성이 많은 산업입니다. 아울러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업종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로 들어오는 길은 크게 본사 근무와 지점영업 업무 이렇게 둘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본사 근무에는 IB, 리서치, 상품운용 등의 부서에서의 업무가 있고 지점근무는 지점영업 업무가 있습니다. 우선, 본사 근무를 위해서는 대학 생활 동안 외국어 학습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영어 회화는 기본이고 일본어에 기타 외국어까지 습득한다면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증권사에 도전할 때 강한 장점 중 하나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지점영업을 위해서는 평소에 증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성실히 쌓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밝고 명랑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PU는 대학공부와 동시에 여러 언어를 배우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APU에서 외국어와 학점관리, 거기에 동아리 활동까지 열심히 한다면 증권사에서 원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업은 서비스산업 이기 때문에 본사업무건 지점영업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이 가장 중요 합니다. 본인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저는 면접 시 APU 태권도부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앞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국적 친구들과의 캠퍼스 생활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는 부분 또한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구사 능력 또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류보다는 면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PU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면접 시 국내 대학 졸업한 학생들보다 참신하고 주목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